



한밤의 특타 훈련 최형우 방망이 달군다

가을 부진에 빠진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가 한국시리즈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홍백전이 끝난 뒤 특타에 나선 최형우가 뜻대로 타격이 되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



7번째 KS 고향팀서 특별한 가을잔치 준비

9월·10월 타율 0.231 부진... '3할·30홈런·100타점' 불발 특타로 감각 끌어올리기 안간힘 '집중해서 내 역할 할 것'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가 7번째 한국시리즈 무대에서 반전을 노린다. 최형우는 KIA의 2017 정규시즌 우승의 핵심 인물이었다. 올 시즌 고향팀 유니폼을 입고 새 야구 인생을 시작한 최형우는 말 그대로 KIA의 해결사였다. 경험 많은 최형우가 4번 자리를 지켜주면서 타선의 시너지 효과도 높여왔다.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가장 KIA가 노심초사 들여다보고 있는 핵심 선수 역시 최형우다.

최형우는 고된 많은 가을을 보내고 있다. 지난 9·10월 최형우는 91타수 21안타, 0.231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홈런도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3할·30홈런·100타점'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올 시즌 최형우는 0.342의 타율로 120타점을 올렸지만 홈런이 26개에서 멈췄다.

최형우의 부진 속에 KIA는 시즌 막바지 두산 베어스의 숨 막히는 추격에 쫓기며, 시즌 최종전에서야 1위를 확정할 수 있었다. 설상가상 최형우는 허리가 좋지 않아 한국시리즈 대비 연습경기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다. 결과도 좋지 못했다.

앞선 19일 야간 홍백전이 끝난 뒤 최형우는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다. 이날 경기에서도 침묵한 그는 이범호, 안치홍과 특타를 자처해 방망이를 들렸다. 텅 빈 그라운드에는 최형우의 한숨과 탄성이 가득했다.

공을 놓친 뒤 한숨을 쉬기도 했고, 빗맞은 타구가 나오면 자신의 머리를 때리며 자책을 하기도 했다. 팬스 맞는 큰 타구를

날리고도 '원하는 방향으로 타구를 보내지 못했다'며 울상을 짓기도 했다. 훈련이 끝난 뒤 그라운드에서 드러누운 최형우는 "모든 게 좋지 않다"면서 허공에서 방망이를 돌리는 동작을 취하는 등 감잡기에 주력했다.

다행히 최형우는 특타 후 치른 지난 21일 마지막 홍백전에서 연습경기 첫 안타에 이어 멀티히트로 타점도 올리며 한숨을 돌렸다.

KS 미디어데이 오늘 오후3시 전남대 용지관에서

KIA 양현종·김선빈 등 참가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가 24일 오후 3시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2017 KBO 정규시즌 우승팀 KIA 타이거즈에서는 김기태 감독과 선수대표로 양현종과 김선빈이 참가한다.

플레이오프에서 NC 다이노스를 3승 1

패로 꺾고 3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두산 베어스에서는 김태형 감독과 유희관 오재일이 참가해.

이들은 기자 회견을 갖고 2017시즌 마지막 무대를 앞둔 소감 등을 밝히고 포토타임 등을 가질 예정이다.

공식 행사 전 취재기사와 선수들의 자유 인터뷰도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형우에게는 이번이 7번째 한국시리즈다. 전 소속팀이었던 삼성 라이온즈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내리 한국시리즈 왕권에 도전하면서 최형우는 특별한 가을을 보내왔다. 고향팀에서 또 다른 '가을 잔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유난히 힘든 가을이다. "이 시기에 컨디션이 좋았던 적이 없다"며 한숨을 쉬 최형우는 "그래서 한국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많이 치는 편이다. 특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국시리즈 준비

과정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또 최형우는 "두산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 선수들이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다. 우리 팀은 경험이 없다. 쉽지 않은 승부일 것이다"면서도 "하지만 그 순간에 누가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알아서 움직이는 선수가 나올 것이다. 집중해서 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시청 앞서 3~5차전 응원해요

28~30일 대형 스크린 설치...문화 공연도

'호랑이 군단'의 'V11'을 위해 광주시·광주시체육회·기아자동차·KIA 타이거즈가 야의 응원전을 마련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25일부터 시작되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중 KIA 원정경기가 열리는 3·4·5차전(10월 28~30일)에 광주시청 문화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다. 경기 시작 30분 전 문화공연을 시작한다. 경기 시작 30분 전 문화공연은 시합으로 치어리더 응원 등 실제 경기장과 같은 느낌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3·4차전이 열리는 주말 28일과 29일은

오후 2시, 5차전이 있는 30일은 오후 6시 30분에 경기가 예정돼 있다.

윤창현 광주시장도 이날 참석해 응원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야회응원전에 3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음향 및 조명 시설, 유료봉사시설, 기아차 홍보부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KIA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화합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2017 MLB 포스트시즌 일정
한국시간 기준

WORLD SERIES
2017

월드시리즈
(7전4선승제)

1차전(10.25) 다저스타디움
2차전(10.26) 다저스타디움
3차전(10.28) 미닛메이드 파크
4차전(10.29) 미닛메이드 파크
5차전(10.30) 미닛메이드 파크
6차전(11.1) 다저스타디움
7차전(11.2) 다저스타디움

휴스턴 에스트로스
아메리칸리그

LA 다저스
내셔널리그

자료/MLB.com

104승 vs 101승 WS 승자는?

LA-휴스턴 내일 1차전

메이저리그에서 약 반세기 만에 정규시즌 100승 팀이 월드시리즈에서 격돌한다.

올해 월드시리즈는 양대 리그에서 100승 이상씩을 거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104승)와 휴스턴 에스트로스(101승)의 매치업으로 결정됐다.

다저스와 휴스턴은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1차전을 벌인다. 100승 팀이 월드시리즈에서 맞붙는 것은 1970년 볼티모어 오리올스(108승)와 신시내티 레즈(102승) 이후 처음이다.

다저스는 1988년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한 번도 월드시리즈에 오르지 못했다. 10차례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지만, 챔피언십시리즈에서만 4차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11번째인 올해는 다른 결과를 자신하고 있다. 디비전시리즈, 챔피언십시리즈를 7승 1패로 통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저스는 29년 만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마쳤다.

다저스는 그나마 5번이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지만 1962년 창단한 휴스턴은 아예 우승 경험이 없다.

햇수로 따지면 무려 55년으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69년)에 이어 메이저 리그에서 두 번째로 긴 우승 가뭄이다.

휴스턴에는 창단 첫 우승에 더해 반드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 휴스턴은 지난 8월 허리 케인 '하비'로 미국 내에서 가장 극심한 수해를 입었다. '휴스턴 스트롱(Houston Strong)' 패치를 붙이고 그라운드에서 나서는 휴스턴 선수들은 지역 주민들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마운드 전력은 다저스가 앞선 가운데 코디 벨런저(다저스)-카를로스 코레아(휴스턴)의 괴물 신인 대결과 체이스 어블리(다저스)-카를로스 벨트란(휴스턴)의 베테랑 타자 격돌이 흥미롭다. /연합뉴스

무등중, 2017 추계 중학교 야구 우승 동성중 등 꺾고 3연승

무등중이 2017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무등중은 최근 무등경기장에서 끝난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3연승으로 우승팀이 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우승팀 동성중을 비롯한 화정중, 충장중 등 4개 팀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무등중은 첫 경기에서 충장중을 3-2로 꺾은 뒤, '디펜딩 챔피언' 동성중을 5-7로 이기며 연승을 달렸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진흥중과의 경기에서 6-4 승리를 거두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 ◇추계 대회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 김대홍(무등중) ▲우수투수상 = 김복원(무등중) ▲타격상 = 송태환(11타수 7안타·0.636·진흥중) ▲최다도루상 = 고은수(5개·진흥중) ▲



- 최다타점상 = 고은수(4타점·진흥중) ▲감독상 = 김성민(동성중) ▲미기상 = 최우혁(무등중) ▲감독상 = 김성일(무등중) ▲지도상 = 김도연(무등중 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리그 마수절이 득점 토트넘 4-1 승·시즌 2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25)이 마침내 리그 마수절이 득점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23일 영국 런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 2017-2018 9라운드 홈경기에서 정규리그 1호골이자 시즌 2호골을 작렬했다.

1-0으로 앞선 전반 11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해리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팀의 두 번째 득점이자 4-1 승리의 결승골을 쏘았다.

손흥민은 지난달 14일 2017-2018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를 상대로 시즌 첫 골을 넣었지만, 리그 경기에서는 골을 넣지 못했다. 주로 교체 출전하거나 수비수로 출전하면서 마음껏

공격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3-4-3 전술을 꺼내 들었고, 손흥민에게 왼쪽 측면 공격을 맡겼다.

원톱 케인을 중심으로 손흥민이 왼쪽, 델리 알리가 오른쪽 측면 공격을 맡았는데, 이 전술은 경기 중 3-5-2로 변화하기도 했다. 이때는 손흥민이 케인과 투톱으로 나섰다.

손흥민은 공격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자 마음껏 뛰어다녔다. 전반 4분 토트넘의 첫 골이자 팀 동료 케인의 골도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왔다.

손흥민은 상대 진영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날리기 쉬운 위치에 있던 키린 트리피어에게 공을 보냈고, 트리피어는 페널티 지역 오른쪽을 침투하던 케인에게 공을 보냈다. 케인은 골키퍼까지 제치는 제치었

는 플레이로 선취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곧바로 두 번째 골을 넣으며 2-0 리드를 만들었다. 그의 골은 결승골이 됐다.

손흥민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다. 전반 16분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침투 패스를 가슴으로 필로하게 트래핑한 뒤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크로스바를 맞고 나와 아쉬움을 남겼다.

2-1로 추격을 허용한 전반 28분에는 델리 알리의 스루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를 잡기도 했다. 손흥민은 후반 24분 무사 시소코와 교체되며 이날 경기를 마쳤다.

올 시즌 정규리그 첫 골은 다소 늦은 편이다. 그는 지난 시즌 리그 첫 골을 9월 11일, 첫 출전 경기에서 기록했다. 올 시즌 첫 골은 리그 7경기 만에 나왔다. /연합뉴스